



## 지방의회 중계식

### 대구시의회 결산 심의

대구시의회는 8일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 실국의 '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' 예비심사 및 안건을 심의했다.

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건설환경위원회(위원장 도재준) 심사에서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. 최문찬 부의장은 "부채가 1천29억 원에 이르고 해가 갈수록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잉시설투자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"고 꼬집었다. 최 부의장은 이어 "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기업경

## 상수도본부 경영합리화 추궁

영진단 중간보고결과 현행 인력을 50%로 구조 조정하라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사실이냐"며 "최종결과에서 주40시간에 46명 감원으로 나온 것은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니냐"고 질타했다. 답변에 나선 강성철 본부장은 "중간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어서였다"고 해명했다.

경제교통위원회(위원장 도이환)는 이날 과학기술진흥실과 교

통국, 교육사회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,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관리국 공보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.

이날 심사에서는 △(재)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지원조례 △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△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.

문정화기자

moonjh@idaegu.com